

9월5일(월)/딤후전 6:1~2

제목: 내가 잘하면 전체 크리스찬이 삽니다.

바울은 크리스찬의 일상생활과 노동에 관한 중요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크리스찬 노동자는 자기의 고용주를 항상 존중하고 또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1절). 만일 그가 게으르고 불손하면 그것은 기독교를 경멸할 구실을 세상에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이다(1절). 크리스찬 노동자는 자기 고용주가 같은 크리스찬이라고 해서 그것을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2절). 같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게으르고 부주의해도 잘 봐줄 것이라 생각하여 안이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자기의 고용주가 같은 기독교에 몸 담은 사람이라면 그를 더 잘 섬겨야 한다. 크리스찬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동료들 때문이다(2절). 어느 한 크리스찬 노동자가 요령을 피우며 성의 없이 일을 한다면 고용주는 일꾼을 고용하는 일에 있어서는 크리스찬을 배제할 능력이 있게 된다. 고용주는 ‘일만큼은 크리스찬이 아닌 일반인 들이 더 나아’ 라고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성실한 다른 크리스찬 노동자들이 피해를 본다. 나 한 사람이 성실하게 일하여 좋은 결과를 얻으면 이익을 얻는 자들은 나의 동료들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9월6일(화)/딤후전 6:3~10

제목: 이단과 돈

이단이나 사이비는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나 실은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도 모른다(4절). 그들은 알기 어려운 공론을 가지고 토론과 언쟁을 좋아한다(4절). 그들은 항상 시끄럽고 분쟁하며 자기들의 가르침을 상품화한다(4~5절). 상품화한다는 말은 결국 먹고 사는 수단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이다. 결국 돈이 목적인 셈이다. 바울은 이어서 돈에 관한 가르침을 준다. 이 본문은 가장 자주 인용되면서도 가장 잘못 인용되는 본문이다. 돈이 일반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반 악의 뿌리이다(10절). 돈 욕심은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갈증을 유발하게 한다.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점점 더 갈증을 일으키는 것처럼 돈도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큰 갈증을 일으킨다. 돈은 사람에게 안전을 준다. 그러나 그 안전을 넘어서 욕심에 사로잡히면 좀 더 축적하게 위해 남들이 피해를 보건 가난해지건 상관없게 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다. 이것이 결국 패망으로 가는 길이 된다(9~10절). 나에게 부귀욕이 생기면 얼른 정신을 가다듬어야 한다. 이것이 결국 망하는 길이라고... 너무 부하지도,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사는 것이 가장 은혜롭고 가장 행복하게 사는 것이다(8절).

9월7일(수)/딤후전 6:11~16

제목: 신앙은 고백해야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놀라운 도전을 주고 있다. 첫째,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라고 하였다(11절). 둘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다(12절). 셋째,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신앙 고백을 잘 한 것을 기억하라 하였다(12절). 빌라도가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눅23:3)라고 하였듯이 그 어느 누구 앞에서건 자기의 신앙 고백을 담대하게 드러내라고 하였다(13절). 넷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흠없고 책망 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라고 하였다(14절). 신앙적인 면 뿐 아니라 생활과 일에 있어서도 남에게 흠 잡히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은 통치자이시며 왕이시며 영존하시며 주권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였다(15~16절). 우리도 디모데처럼 신앙을 담대히 고백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는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장소는 교회 뿐 아니라 삶의 현장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행한 신을 일을 지금 다시 행하는 일이 된다. 우리가 침묵하면 예수님의 일은 과거에 끝난 일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면 예수님은 지금 다시 그 일을 재현하시는 것이 된다.

9월8일(목)/딤후전 6:17~19

제목: 돈을 쓰십시오

초대교회에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섞여 있었다. 바울은 이 부자들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충고하였다. 부자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무엇인가? 교만과 부에 소망을 두는 행위이다(17절). 부자가 마음이 높아질 이유가 없다. 돈 많은 것이 자랑이 아니다. 부유하다는 이유로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개인이라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부가 중요한 것이지만 거기에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다. 왜냐하면 오늘 부유한 사람이 내일 가난해질 수 있고 오늘 가난한 사람이 내일 부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부자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를 베풀고 나누어 주는 행동이다(17~18절). 부자는 선한 일을 위하여 그 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부자는 죄인이 아니라 책임을 맡은 자이다. 그런데 그 부의 사용 여부에 따라 내세를 잘 준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19절). 부자가 그 부로 인해 가난한 사람을 내려보거나, 혹은 자기 자신만을 살찌운다면 그 부는 그의 영혼에 큰 적이 된다. 그러나 그것을 잘 사용하면 내세에서 분명한 보상을 받게 된다. 그것이 성서의 약속이다. 성서 속에 인과응보의 흔적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다.

9월9일(금)/딤후 6:20~21

제목: 똑똑한 것 보다 착한 것이 낫다.

바울은 편지 마지막에 자기가 디모데에게 ‘부탁한 것’을 잘 지켜주기를 당부했다(20절). 여기서 ‘부탁한 것’은 ‘말긴 돈’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그 돈은 반드시 몽땅 돌려주어야 할 돈이다. 디모데는 바울에게 받은 교훈과 가르침을 하나도 남김 없이 몽땅 사람들에게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바울은 ‘헛된 말’을 피하라고 했다(20절). 여기서 ‘헛된 말’은 ‘속된 잡담’을 가리킨다. 사람이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속있는 말만 하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잡담 한마디 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럴 수는 없다. 여기서 바울이 가르치는 교훈은 ‘속된’ 잡담이다. 음란하고, 폭력적이며, 악의적인 잡담을 가리킨다. 또 바울은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하였다(20절). ‘거짓된 지식의 반론’은 쓸데없는 논쟁을 가리킨다. 똑똑한 사람은 본래 진위를 따지는 논쟁을 좋아한다. 그러나 이것은 쓸데없는 것이다. 쓸데 없는 논쟁에 시간을 낭비하는 똑똑한 사람이 보다 이런 논쟁을 피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낫다. 쓸데 없는 논쟁에 휩싸여서 논의를 저울질하는 일보다 홀로 고독하게 앉아서 크리스찬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는 지식이 아니라 삶과 행실이다. 총명보다 착함이 더 낫다.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